

『영미연구』

제56집 (2022): 101-130

<http://doi.org/10.25093/ibas.2022.56.101>

중세 후기 로맨스 속 사회적 신분과 결혼

이 동 춘

단독 / 대구대학교

[국문초록]

중세시대 결혼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당사자들의 동의보다는 가문을 위한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지나침이 없다. 과거의 혈통을 유지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보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혼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조건들보다도 결혼 당사자가 속한 가문의 재산과 권력, 다시 말해서 사회적 신분이 결혼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교회법에 따라 마땅히 지켜져야 할 결혼의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 원칙마저도 어기고 당시 귀족들은 이혼 또한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당시 귀족들은 가문의 존속과 번영이라는 핑계로 족외혼과 일부일처제와 같은 교회법의 원칙들을 엄격하게 지키지도 않았다. 이는 그만큼 당시 가문의 보존과 영속이 결혼의 기본 전제였으며, 이를 위해서 결혼 당사자들이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조건이 결혼 상대의 사회적 신분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11세기 중반부터 형성된 이러한 결혼관과 결혼에 있어서 사회적 신분의 중요성은 후기 중세 시대 귀족 계층은 물론 중간 계층(the middle class)까지 확산하여 나타난다.

주제어: 결혼, 사회적 신분, 중세 로맨스, 초서, 말로리

I. 서론

중세 시대 결혼관, 특히 결혼에 있어서 고려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11~12세기 성과 결혼, 그리고 가족 구조에 대하여 먼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이념과 세속 윤리 사이의 충돌과 타협의 과정에서 형성된 당시 성과 결혼에 대한 기본 틀이 부분적 수정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대 사회의 결혼과 성문화의 윤리적 토대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유희수 35). 세속적인 영역에 속하는 성과 결혼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고 제도화했던 당시 주체는 교회였다. 당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종교였으며, 특히 12세기 초 교회 개혁론자들은 성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자세를 지향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e)와 같은 교부 철학자들과 그를 계승한 1100년 전후 교회 개혁론자들은 성욕을 인간의 죄와 타락의 원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들이 가장 이상적인 덕목으로 삼고 있던 동정(童貞)의 삶과 세속의 성문화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성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세속 사회의 느슨한 성문화와 첨예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며, 이 같은 갈등과 대립은 시간이 지나면서 양측의 필요에 따라 조정되고 타협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양측의 타협과 조정의 결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결혼의 ‘동의론’(consensus)과 이를 기초한 결혼의 ‘성사화’(sacramentum)라 할 수 있다. 교회 측면에서 볼 때, 교회를 대신하는 사제의 개입을 통해서만 남녀 간의 육체적 결합이 신의 은총 속에서 합법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의 ‘성사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결혼 당사자들 사이의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결혼의 성사 개념은 육체적 결합을 중시하는 당시 세속의 결혼관을 포용 내지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세기 중엽 그라티아누스(Gratianus)가 결혼 당사자의 동의를 결혼의 성립 요소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를 결혼 성립의 필수 요소로 제시한 사람은 피에르 롬바르(Peter Lombard)이다. 그 후 결혼 성립을 위한 당사자들 사이의 ‘동의’는 교황 알렉산더 3세와 인노켄티우스 3세(Innocentius III)에 이르러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발전하게

된다(Brooke 152; Brundage 264-5).

그런데도 결혼의 합법적인 조건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의 동의를 필수적이었던 사실은 당시 결혼에 있어서 남녀 사이의 애정과 개인적 선택이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단지 교회법에 기초한 일종의 규범에 불과할 뿐, 실제 세속의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혼 당사자들 사이의 동의보다는 결혼 당사자의 사회적 신분이다. 초기 중세 사회에서 아들은 물론 딸에게까지 상속할 수 있었던 이른바 ‘분할 상속체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11세기 중반부터 남자 중심의 ‘장자 상속제’가 채택되면서 오직 가장에게 가문의 물적, 인적 소유권과 지배권을 줬다. 가문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가장 외에 나머지 구성원들은 물적인 측면 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결혼하지 못한 젊은이가 ‘방랑 기사’(errant knight)로서 돈과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귀부인의 사랑을 갈망하는 이른바 ‘궁정풍 사랑’ 역시 이러한 ‘장자 상속제’의 부산물로 볼 수 있다.)

가문의 존속과 발전, 그리고 자산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자 상속제’는 당시 결혼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당시 세속 귀족 사회에서 결혼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당사자들의 동의보다는 가문을 위한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지나침이 없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혈통을 유지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보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혼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조건들보다도 결혼 당사자가 속한 가문의 재산과 권력, 다시 말해서 사회적 신분이 결혼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교회법에 따라 마땅히 지켜져야 할 결혼의 ‘불가해소성’ 원칙마저도 어기고 당시 귀족들은 이혼 또한 서슴지 않았다(Duby 7-8, 15-7). 심지어 당시 귀족들은 가문의 존속과 번영이라는 핑계로 족외혼과 일부일처제와 같은 교회법의 원칙들을 엄격하게 지키지도 않았다. 이는 그만큼 당시 가문의 보존과 영속이 결혼의 기본 전제였으며, 이를 위해서 결혼 당사자들이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조건이 결혼 상대의 사회적 신분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11세기 중반부터 형성된 이러한 결혼관과 결혼에 있어서 사회적 신분의 중요성은 후기 중세 시대 귀족 계층은 물론 중간 계층까지 확산하여 나타난다. 본 논

문은 중세 시대 대표적인 텍스트들, 특히 당시 귀족 계층과 중간 계층의 이상을 반영하고 있는 로맨스를 중심으로 결혼과 사회적 신분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바쓰의 여장부 이야기」(The Wife of Bath's Tale) 속 결혼과 사회적 신분

중세 대표적 시인인 초서의 작품 속에 나타난 결혼과 사회적 신분의 관계를 알아보기에 앞서 성과 결혼을 두고 교회와 세속 귀족 계층 사이의 대립과 조정이 일어났던 11~12세기 문학작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양측 사이 조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당시 결혼의 기본 틀이 근대까지 이어지고 있듯이, 당시 안드레아스(Andreas)가 『궁정풍 사랑』(*De Amore*)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장애물들 역시 중세 시대 문학 작품들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안드레아스 작품 속 화자는 ‘사랑의 궁전’에서 만인은 평등하다고 주장한다(112). 그러면서도 화자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들은 물론 사랑의 장애물들, 예를 들어, ‘가난,’ ‘나이,’ ‘불품없는 외모’ 등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랑하는데 만인이 평등하다는 화자의 주장은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순점들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남녀의 대화 속 남성의 목소리를 통하여 남녀가 결합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첫 번째 조건으로서 ‘태생,’ ‘나이’ 혹은 ‘미모’보다는 ‘사람의 됨됨이’가 제시되고 있다(65). ‘사람의 됨됨이’가 남녀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라는 남성의 주장은 여성의 주장에 의해 반박당한다:

따라서 같은 계층에서 (상대를) 구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주제넘은 행동에 대해 받아 마땅한 힐난을 피하려고 다른 계층의 여성을 공격하려 하지 마세요.

Seek, therefore, a love within your own class, and do not try to attack a woman in another one, lest you meet with a well-deserved rebuke for your presumption (64).

기본적으로 작가 안드레아스는 누구이며 어떤 의도로 누구를 위해 작품이 쓰인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게다가 작품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비평가들의 공통된 의견 또한 찾기가 더더욱 쉽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안드레아스 작품 속 화자의 주장이나 앞서 언급한 남녀의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당시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것인지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안드레아스의 작품의 내용들 가운데 제1권에 들어있는 남녀 사이 대화의 목적과 진위를 두고 비평가들 사이 의견이 분분하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1권의 여덟 개 대화들 가운데 네 개에서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써 남녀의 ‘사회적 신분’이 지적되고 있다. 나머지 대화에서 또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적 신분’이 남녀가 사랑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임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특히 신분의 차이가 나는 남녀 사이 대화(#2, #3, #4, #6)에서 상대보다 신분이 높은 남성이나 여성은 공통으로 신분의 차이를 무시한 사랑이란 불합리하며 비현실적인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귀족 신분의 여성과 중간 계층의 남성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에서 신분 차이를 무시하고 남성의 구애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귀족 신분의 여성에게는 “엄청난 불명예”임을 여성은 말한다(65). 이야기 게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타고난 신분 차이를 극복하려는 남성의 노력을 귀족 신분의 여성은 매우 수사학적이며 완곡한 어법으로 반박하면서도 신분이 서로 다른 남녀가 사랑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것” 같다고 단호하게 말한다.²⁾ 여섯 번째 대화에서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귀족 남성의 구애를 받는 여성 또한 표현에서 차이는 있으나 신분 차이를 넘는 사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잘 알고 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대화에서 상대보다 신분이 낮은 여성은 남성의 구애로 인한 두려움을 표출할 정도이다. 여성은 애초부터 그러한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를 거부하며 그 같은 사랑의 고통과 끝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보인다(86). 여성이 보여주는 두려움이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애하는 남성에 비하여 신분이 높은 여성에 견줘볼 때, 이 여성은 신분 차이가 있는 남녀의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85).

당시 사랑과 사회적 신분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문학작품이 안드레아스의 궁정풍의 사랑만은 아니다. 마리 드 프랑스(Marie de France)의 작품을 비롯하여 이른바 프랑스 초기 ‘목가시’라 할 수 있는 *pastourelle*에서 역시 사랑과 결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남녀의 사회적 신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Scattergood 61-80). 이들 작품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반영된 당시 결혼과 사회적 신분의 관계는 사회적 계층 사이의 차이가 좀 더 세분되기 시작하는 중세 후기 작품들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초서의 작품들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보인다. 본 논문에서 논할 『바쓰의 여장부 이야기와 프롤로그』를 비롯하여 『새들의 의회』(*The Parliament of Fowls*),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드』(*Troilus & Criseyde*) 등에서 초서는 짧게나마 당시 남녀 결혼에서 있어서 상대방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를 비롯한 초서의 많은 이야기에서 ‘계층’ 혹은 ‘계급’의 의미를 지닌 ‘degree’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캔터베리 이야기』의 「총 서시」(General Prologue)에서 초서는 순례자들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사회적 신분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사회에서 신분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사회에 계층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는 신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초서는 보고 있다. 마치 천상에도 하느님과 천사들의 등급이 있듯이, 인간 사회에도 등급과 계급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당시 일반사람들처럼 초서 역시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론은 「총 서시」(the General Prologue)외에 여러 작품에서 초서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degree’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순례자들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화자로서 이야기 게임의 대미를 장식하는 시골 사제의 목소리에서도 가능하다. 초서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시골 사제는 자신의 이야기에서 사회적 신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일부 사람은 더 높게 그리고 일부 사람은 더 낮게 하
 님은 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 안에서 역할을 해야 합니
 다... 3)

... God ordeyned that som folk sholde be moore heigh in estaat and in
 degree, and som folk moore lough; and that everich sholde be served in his
 estaat and in his degree... (X 770-74).⁴⁾

사람들 사이의 신분 혹은 계급의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신이 부여한 신분에 맞
 게 각자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초서는 조금도 의문을 품지 않았던 듯싶다.
 또 다른 한편으로 신분의 상승에 대해서 초서의 입장은 다소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브루어(Derek Brewer)의 표현대로 당시 초서는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소 어정쩡
 한 처지에 처해있는 이른바 ‘사회적 변종’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304). 다시 말해서,
 초서는 타고난 귀족이나 젠트리 계층도 아닌 이른바 ‘중간 계층’으로서 전통적인 신분
 체계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신분 체계의 지속적인 흐려짐”으로 인하여 가장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에 해당하였다(Strohm 39). 그가 처한 이 같은 입장 때문에 『새
 들의 의회』에서 초서가 한편으로는 결혼에 있어서 사회적 신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신분 체계와 결혼관에 대하여 아이러니한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분과 신분 변동에 대한 초서의 견해는 혁명적이지도 않을뿐
 더러 과거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시골 사제의 입을 통해
 서 뿐만 아니라 신분 변동에 매우 민감한 『캔터베리 이야기』 속 화자들에 대한 초서
 의 부정적인 태도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초서의 이 같은 입장은 결
 혼과 사회적 신분 사이 관계에 대한 그의 태도에도 반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초서의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드』를 들 수 있다. 트로일러스의 구애를 받은 크리세
 이드가 가장 먼저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트로일러스와 자신의 신분 차이
 이다. 트로일러스가 왕족의 신분(royal estat-ll. 661)임은 물론 그가 왕의 아들(my

kynges sone is he--ll. 708)이라는 사실이 크리세이드가 트로일러스의 구애를 받아들인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게다가 자기 부친인 칼커스(Calchas)의 이적 행위와 이로 인한 그녀의 불확실한 상황은 그녀가 트로일러스의 구애를 받아들이는 것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 둘 사이의 분명한 신분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세이드는 트로일러스의 구애를 받아들이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이 분명 왕의 아들일지언정,
이 경우 당신이 나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듯이
사랑에 있어 나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잘못을 범한다면,
당신께 화내는 것을 참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를 섬겨준다면,
이에 합당하게 당신을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A kynges sone although ye be, ywys,
Ye shal namore han sovereignete
Of me in love, than right in that cas is;
N'y nyl forbere, if that ye do amys,
To wratthe yow; and whil that ye me serve,
Chericen yow right after ye disseve. (III. 170-75)

마치 크리세이드는 사회적으로 신분의 차이는 인정하나 사랑에서는 신분이 무의미한 것처럼 말하고는 있다. 그러나 사랑에 있어서 사회적 신분의 우위가 변할 수 있다는 크리세이드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당시 독자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전쟁 중 배반자의 딸로서 자신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크리세이드의 어쩔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사랑과 결혼에 있어서 신분의 중요성을 노골적이며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는 초서의 태도는 『새들의 의회』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자연(Dame Nature)이 다른 새들에게 설명하고 있듯이, 『새들의 의회』에서 사랑에 빠진 최고의 수컷 때는 트로일러스

와 마찬가지로 사회 신분상 왕에 해당한다(The foul royal, above yow in degre, 394). 그런데도 수컷 매는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가 자신을 왕으로느커녕 신분이 미천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416). 수컷 새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크리세이드의 변명처럼 사랑에 있어서 남녀의 신분 차이가 무의미할뿐더러 남녀의 사회적 신분이 뒤바뀔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수컷 매가 하는 한갓 푸념에 불과할 뿐이다. 게다가 수컷 매의 불평 역시 진지하지 않고 다소 장난스럽게 느껴진다. 수컷 매의 푸념에서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걸맞게 자신을 대하지 않는 상대에 대하여 다소 어이없어하는 수컷 매의 여유로운 태도가 느껴진다.

수컷 매의 다소 우회적이며 장난스러운 태도와는 달리 매우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방법으로 초서는 사랑에 있어서 남녀 신분 차이의 중요성을 『새들의 의회』에서 보여준다. 귀족 신분의 수컷과 암컷 매 외에도 사랑이 가능한 신분이 낮은 많은 새들이 있다며 오리는 대담하게도 사랑에 있어서 신분의 평등을 주장한다(There been mo sterres, God wot, than a payre!--595). 이에 대하여 오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새들의 조롱과 귀족 신분에 해당하는 새들 가운데 한 마리의 날카로운 공격이다. 귀족 신분의 새는 오리의 주장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며 응수한다 (596-97). 귀족 신분의 매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cherl’과 ‘gentil’이라는 단어와 농장에 있는 “똥 더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자연계는 물론 인간 사회에 신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신분에 맞는 행동과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귀족의 매는 강조한다. 한마디로 오리와 귀족 신분의 매 사이의 대립은 초서의 어느 작품에서 볼 수 없는 신분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작품 마지막에 암시되어 있듯이, 사랑과 결혼에 있어서 신분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각자의 신분의 맞는 배필을 구하는 것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초서는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작품 외에도 사랑과 결혼에서 남녀의 신분 차이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

는 사실을 초서는 바쓰의 여장부가 하는 이야기와 프롤로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장부 이야기의 프롤로그에서 여장부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파가 젊은 기사에게 하는 이른바 ‘침실 설교’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안드레아스의 작품에서 언급되고 있는 ‘나이,’ ‘외모,’ 그리고 ‘사회적 신분’ 등이 초서가 살던 시대에서 또한 결혼의 장애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이들 장애물 가운데서 노파는 젊은 기사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그녀만의 주장을 매우 진지하게 펼친다 (1159-62).

이 밖에도 노파는 진정한 ‘귀족 신분’은 귀족다운 개인의 행동과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선조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일부 비평가들의 지적처럼 노파의 주장은 비논리적인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것이 사실이다(Crane 26; Dempster 173-6). ‘귀족 신분’에 대한 노파의 반박은 남녀 결혼에 있어서 ‘신분’을 무엇보다 중요시했던 당시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에 반하는 것으로서, 초서의 독자 누구도 노파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실적 결혼관을 무시한 노파의 주장은 그녀의 마음속 소망, 즉 젊고 귀족 신분의 기사와의 결합을 꿈꾸는 노파의 이상이 반영된 것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노파를 통하여 작품의 화자인 여장부가 자신의 호기에 찬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젊은 기사가 자신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노파가 유독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에서 당시 결혼에서 무엇보다 남녀 사이 ‘신분’의 격차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을 무시하고 마음속 이상과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노파의 노력이 비현실적이며 무의미하다는 사실이 그녀의 최종 결정에서 드러난다. 진지한 태도로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며 젊은 기사의 현실적인 결혼관을 전복시키려는 노파의 노력은 결국 수포가 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호기 있게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노파는 결국 젊은 기사가 원하는 바에 동조하는 꼴이 되고 만다. 패터슨(Lee Patterson)의 주장대로, 노파(여장부)의 ‘호기에 찬 욕망’은 궁극적으로는 남성적인 소원성취인 셈이고, 노파 자신 또한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전통과 윤리에 동조 또는 일

조를 하게 되는 썸이다(682-3). 타고난 사회적 신분을 바꿀 수 없듯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 ‘사회적 신분’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노파의 마지막 결정 외에 여장부의 마지막 모습에서도 읽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성 중심의 문화와 자신의 사적인 경험 사이를 오가던 여장부가 전자를 극복하지 못한 채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순하고, 젊고, 그리고
 잡자리에서 힘 있는 남편을 보내주소서,
 아울러 우리와 혼인한 그들보다 오래 살도록 해주소서.
 또한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부인들의 지배를 받기를 원치 않는 자들의
 명(命)을 짧게 줄여 주소서.
 그리고 늙고, 성질 못된 구두쇠 같은 남자들에게 역시
 주님 곧 역병을 내려주소서.

... and Jhesu Crist us sende
 Housbondes meeke, yonge, and fressh abedde,
 And grace t'overbyde hem that we wedde;
 And eek I praye Jhesu shorte hir lyves
 That noght wol be governed by hir wyves;
 And olde and angry nygardes of dispence,
 God sende hem soone verray pestilence! (1258-64)

여장부가 자신의 마음속 이상과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로맨스의 세계에서 벗어나 이제 14세기 영국의 현실적 상황에 들어왔음이 여장부의 끝맺는 말속에서 느껴진다(Quinn 217). 아서왕의 로맨스를 통하여 자신의 소원성취를 투사하는 데 실패했음을 깨달은 여장부는 환상의 세계에서 벗어나 남녀는 물론 신분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비록 여장부가 로맨스라는 공간에서 일정 시간 기존의 권위와 전통에 도전하거나 이를 전복시키려고 노력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원래 시작했던 바로 그 지점에 그녀로 남겨져 있는 썸이다. 한마디로 크레인(Susan Crane)의 지적처럼

럼, 바쓰의 여장부 그리고 그녀가 만든 노파는 “허구를 이야기하는 허구인 셈이다”(20). 그뿐만 아니라, 그녀가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토록 집착했던 결혼의 장애물로서 ‘사회적 신분’은 그녀가 넘을 수 없는 너무나 높은 벽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태도와 목소리를 통하여 그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쓰의 여장부는 프롤로그에서 전통적인 결혼관, 즉 결혼에 있어서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할 중요 조건이 ‘사회적 신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프롤로그에서 여장부는 다섯 번째 남편으로서 젠킨(Jankyn)을 생각하면서 그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신분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서생과 결혼한다는 것이 여장부에게는 물론 그녀를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의 눈에도 어리석게 보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여장부는 자기 경험을 되돌아보며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탄식조로 자기변명을 늘어놓는다. “아이고, 아이고 모든 사랑이 죄였어.” (Allas, allas, that evere love was sinne!, 53). 그러면서도 젠킨의 보잘것없는 경제적 능력과 신분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보다 훨씬 젊고 매력적인 남편을 얻었다는 점을 여장부는 순례 독자들에게 과시한다 (596-99).

네 번째 남편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 걷고 있는 젠킨의 발과 다리에 감탄하는 여장부의 모습이 코믹하게 느껴지면서도 주체할 줄 모르는 여장부의 성적 욕망을 고려할 때,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보인다. 그러나 안드레아스의 작품 속 세 번째 대화나 고프리드(Gottfried von Strassburg)의 작품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남성의 신체 일부, 특히 다리와 발은 단순히 남성의 외적인 강인함과 매력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이외에 남성의 사회적 신분과 능력, 그리고 심지어는 남성의 도덕성까지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구실을 한다(Curry 124-27).

초서 역시 『캔터베리 이야기』의 「총 서시」에서 당시 관상학에 근거하여 순례자들의 신체적 특징들을 묘사할 정도로 이들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작가였다.⁵⁾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젠킨의 다리와 발은 육체적 욕망과 성에 집착하는 여장부의 태도를 부각하기 위한 표면적 목적 이외에 궁극적으로 그녀의 마음속 소망을 보여주기 위한 초서의 의도에서 비롯된 장치로 보인다. 여장부는 서생이 아

닌 귀족 신분의 종자(the squire)나 기사에게 어울릴 법한 젠킨의 다리와 발뿐만 아니라, 젠킨이 ‘궁정풍의 사랑’에 적합한 귀족 신분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젠킨의 머리칼, 나이 그리고 그의 묘사나 표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Tison 89). 이는 모두 자신보다 높은 신분의 남성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여장부의 마음속 소망을 보여주기 위한 초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가 외적으로는 젊고 매력적이었다는 점과 더불어 신분적으로는 서생이 아닌 귀족 신분에 해당할 정도였다는 사실을 순례자들에게 여장부는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여장부의 이러한 갈망은 현실을 벗어나 환상 속에서 자신의 소망을 독자들에게 심어주려는 일환들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여장부의 이야기 속 ‘침실 설교’에서 이를 수 없는 소망을 젊은 기사에게 강변하는 노파처럼 여장부 또한 현실적으로 이를 수 없는 신분 상승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은유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여장부는 당시 철저한 신분 체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을 표출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같은 일탈을 갈망하면서도 결혼에서의 남녀 신분의 벽이라는 현실을 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여장부는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신분 체계를 부정하고 싶으면서도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마는 여장부의 모습은 당시 결혼에서 타고난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젠트리(gentry) 계층의 신분 상승 욕망

초서의 작품 외에도 후기 중세 시대 영국 사람들의 보편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학 텍스트가 당시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던 대중적 로맨스들이 아닌가 싶다. 대표적인 예로서 『아토이스의 에글러머 경』 (*Sir Eglamour of Artois*--ca. 1350)과 『포르텐게일의 토렌트』 (*Torrent of Portengale*--ca. 1400)를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은 당시 사회, 문화적인 현상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일종의 ‘대중문학’에 해당하며, 카웰티의 지적하고 있는 대중문학의 특징들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⁶⁾ 그뿐만 아니라, 플롯의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작품은 가족의 해체와 결합, 그리고 결혼과 사회적 신분 사이 관계에 대한 당시 중간 계층(시골의 토착 지주 및 향사, 도시의 부유한 상인 계층 또는 관료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 작품은 중세 초기 로맨스와는 달리 프랑스 원전을 토대로 개작된 것이 아니라 당시 영국 고유의 가치관과 전통을 토대로 생성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작품에 대한 분석은 당시 결혼관, 즉 결혼에 있어서 ‘사회적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 영웅 중심의 로맨스 스타일과는 달리 중세 후기 로맨스들의 초점은 가족에 놓여 있으며 모든 갈등의 생성과 해소 역시 가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사회적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후기 들어 일어나는 급격한 사회 변혁들 가운데 하나가 11~12세기에 시작된 핵가족의 발전이 더욱더 심화함과 동시에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개인적이며 긴밀한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혁은 당시 가치 변화의 중심에서 있던 중간 계층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며(Stone 10), 이들이 자신들이 속해있는 집단과의 유대관계보다는 가족의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급속히 진행되었던 ‘사회 신분의 성층화’ 영향 때문이었다.

맥팔레인(K. B. McFarlane)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 성층화 과정을 통하여 전통적인 과거 귀족층, 그리고 귀족 계층에서 떨어져 나온 중간 계층 사이의 확연한 층이 형성되면서 중간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의 문화를 형성해갔다(275). 그뿐만 아니라, 실추된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들 중간 계층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가문과 가문을 잇는 결혼에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다(Rawcliffe 170). 이들의 관심사는 결혼을 통하여 가문의 혈통을 잇고, 재산의 보전과 증식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들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대방의 ‘사회적 신분’이었다. 이 같은 중간 계층의 결혼관이 당시 ‘대중문학’이라 할

수 있는 앞서 언급한 로맨스들에 반영되어 있다.

『아토이스의 에글러머어 경』과 『포르텐게일의 토렌트』의 공통점은 남녀가 결혼에 이르는데 둘 사이 신분의 괴리가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에글러머어나 토렌트 모두 사회의 성층화로 인하여 과거 귀족 신분에서 중간 계층으로 신분이 떨어진 사람들로서 자신들보다 신분이 높은 신분 계층의 여성을 사랑하고 있다. 신분의 차이 이외에 이들이 고민하는 또 다른 요소는 다름 아닌 자신들이 지닌 재산 정도이다. 백작의 딸과 사랑에 빠진 에글러머어가 자신의 종자에게 조언을 구하자, 종자는 당시 전형적인 중간 계층 사람들이 고려하는 결혼의 필수 조건들, 다름 아닌 사회적 신분과 재산을 언급하며 에글러머어와 백작의 딸인 크리스타벨(Cristabelle)과의 결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한다(64-81). 그러면서도 종자는 에글러머어가 당시 결혼의 필수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지는 못하나 그에게는 기사로서 인품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알려진 가장 고귀한 기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두고 맹세컨대, 무공에 있어
당신은 다섯(기사)의 가치가 있습니다.

Ye ar on of the noblest knyghth
That ys knowen in Cristyante.
In dede of armes, be God on lyve,
Ye ar counted worth othur fyve. (92-5)

신분과 재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타벨 역시 기사로서 에글러머어의 인품과 능력을 높이 사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청혼을 받아들인다(151-56). 그러나 실제 크리스타벨이 에글러머어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아버지가 에글러머어를 사위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에글러머어의 됴됨이와 능력 때문만은 분명 아니다. 크리스타벨은 자신에게 청혼하는 에글러머어에게 사회의 성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역시 자신과 같은 ‘귀족의 혈통’(gentyll blode)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포르텐게일의 토렌트』에서 중간 계층인 젠트리 신분의 토렌트는 자신이 섬기는 황제의 딸 데소넬(Desonell)을 사랑하게 된다. 그 역시 에글러무어처럼 사랑하는 상대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신분과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데소넬이 토렌트를 자신의 배우자로서 맞아들이는데 토렌트의 이 같은 조건들은 무의미하게 보일 뿐이다. 데소넬 역시 토렌트의 남다른 인품과 능력을 높이 사 그의 청혼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녀가 토렌트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에글러무어와 마찬가지로 토렌트의 본래 신분 때문이다. 에글러무어나 토렌트의 본래 신분이 귀족의 혈통이었다는 사실을 이들의 배우자들은 물론 장인이 되는 백작과 왕이 인지하고 있음을 작품의 화자는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한마디로 후천적인 능력보다는 이들이 타고난 혈통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다.

12, 13세기 초 궁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웅 중심의 로맨스에서 주인공의 신분은 귀족 신분으로 태어나 자신의 신분에 걸맞은 여성과 결혼하여 귀족 신분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반하여 앞서 언급한 로맨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기 로맨스에서 중간 계층에 속하는 주인공들이 결혼을 통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양상은 매우 보편적이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양상은 사회 성층화 이후 핵심 귀족 혹은 권력 집단에서 소외된 중간 계층의 독자들, 특히 젠트리 독자층의 ‘욕망’과 ‘바람’이 반영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티그(Susan Wittig)가 지적하고 있듯이, 후기 로맨스들은 반복적이며 상투적인 내러티브 기법과 구성을 통하여 당시 젠트리 독자층의 마음속 환상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아토이스의 에글러무어 경』과 『포르텐게일의 토렌트』에 등장하는 이른바 남성 신데렐라들의 모습은 신분은 낮으나 인품과 능력을 갖춘 당시 젠트리 독자층에는 신분 상승의 희망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위티그가 말하는 환상 혹은 이상이란 에글러무어나 토렌트처럼 자신들보다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은 가문의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오히려 신분에 대한 당시 전통적인 가치관, 즉 출생(가문)과 인품(능력)은 같은 말이며, 귀족만이 귀족이 될 수

있음을 이들 작품은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셈이다(Wittig 89). 이런 점에서 중세 후기 로맨스는 개혁이나 변화를 도모하려는 도전적인 대중 매체이기보다는 과거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사회적 믿음과 관습을 재확인 혹은 인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가족 중심의 중세 후기 로맨스에 강조되고 있는 결혼과 신분 사이의 관계는 15세기 후반 말로리(Thomas Malory)의 대표적인 로맨스인 「개러쓰의 이야기」(Tale of Gareth)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개러쓰의 이야기」의 원전으로 여겨지는 『리비오스 디스코너스』(*Lybeaus Desconus*), 『이포메돈』(*Ipomedon*) 『트리스탄』(*Tristan*)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은 작품 속에서 ‘귀족 신분(혈통)’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Fair Unknown” 계열에 속하는 로맨스에는 일반적으로 주인공이 ‘귀족 신분’으로 발전(성장)하기를 바라는 독자들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말로리가 작품에서 ‘귀족의 혈통’을 강조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개러쓰의 혈통에 대한 말로리의 집착과 강조는 말로리 이전은 물론, 이후 대중적 로맨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다. 기사란 귀족 신분만이 가능하며 귀족 신분은 타고나는 것으로써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점을 말로리는 이야기 내내 강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귀족의 신분은 대대로 세습되는 것이나 귀족다운 행동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귀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개러쓰 관련한 여러 에피소드와 정형화된 이야기의 구조와 패턴을 통하여 말로리는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특히 귀족 신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말로리는 개러쓰와 라이오네스(Lyones) 사이 에피소드를 통하여 15세기 후반 귀족 계층의 이상적인 사랑과 결혼관을 보여준다.

「개러쓰의 이야기」에는 남녀 간의 사랑과 더불어 결혼을 전제로 한 이상적인 사랑이 내재하여 있다. 그러나 개러쓰와 라이오네스의 관계가 단순히 욕망에서 시작된 육체적 사랑을 넘어 후자의 방향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말로리가 의도한 것으로 개러쓰와 라이오네스의 관계를 15세기 후반 귀족들의 보편적인 사랑과 결혼관에 근거하여 말로리는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시 현실에 들어맞는 사랑과 결혼의 관례를 둘 사이 관계에 적용하려는 말로리의 의도는 그의 작품이 프랑스 로맨스의 전통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어디에서도 ‘궁정풍 사랑’의 흔적이 눈에

피지 않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Lyons 143). 작품에서 말로리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은 합법적인 결혼으로 귀착되어야 하며, 단순히 남녀의 합의에 따른 욕망의 추구는 랜슬롯과 귀니비어의 관계에서처럼 두 사람에게는 물론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피해를 준다고 말로리는 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말로리는 작품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개러쓰와 라이오네스의 관계가 둘 사이 육체적 관계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결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작품에 설정하고 있다.

눈에 띄는 장치는 작품의 이중 플롯이며, 이는 말로리의 작품에 영향을 끼친 여타 로맨스들과는 차별되는 그만의 독특한 기법이다. 보통 로맨스에서 주인공이 자신이 처음 계획한 여정을 마치게 되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말로리의 작품에서 개러쓰가 여정을 끝마친 이후에도 이야기는 종결되지 않고 연이어 또 하나의 플롯을 갖춘 이야기가 이어진다. 다시 말해서, 개러쓰가 라이오네스를 아이론사이드 경(Sir Ironside)으로부터 구출해 낸 것으로 이야기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사랑, 그리고 합법적인 결혼에 이르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더해 있는 토너먼트(Tournament) 또한 말로리의 독창적인 요소이며, 둘 사이 성적 욕망의 발산을 저지 내지 지연시켜 캐멀롯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결혼으로 이들의 사랑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말로리의 의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결혼이 가문의 혈통을 잇고 재산의 보전과 증식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관습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말로리가 또 하나의 플롯, 그리고 토너먼트 장면을 더해가며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의 합법적인 결혼 과정에 관심과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러쓰와 라이오네스가 합법적인 결혼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발 사건은 물론 개러쓰를 향한 라이오네스와 라이넷(Lynet)의 행동과 태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혼 상대로 라이오네스가 개러쓰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그의 사회적 신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다. 개러쓰와 결혼 약속에 앞서 라이오네스는 개러쓰의 가문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의 재산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개러쓰를 수행하는 난쟁이를 납치하는 일이다. 그녀의 오빠에게

보고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라이오네스는 개러쓰의 사회적 신분과 가문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다: “내가 잘 알고 있는바, 그 기사는 훌륭하며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I undirstond well that the knyght is a good knyght and com he is out of a noble house, 331). 개러쓰의 신분과 가문을 확인한 라이오네스가 결혼 상대에 대하여 오빠의 의견을 구하게 되는데, 이 또한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족들 가운데 연장자에 해당하는 남성에게 결혼 승낙을 구하는 15세기 후반 결혼의 관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Cherewatuk 24). 이후 마음의 확신이 선 라이오네스는 개러쓰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맹세하게 된다(332). 여기에서 라이오네스가 사용하는 표현들 또한 당시 결혼을 주재하는 사제가 신부에게 질문을 던지고 신부가 응답할 때 사용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Cherewatuk 24).

개러쓰와 함께 생활하며 개러쓰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라이넛은 물론 라이오네스, 그리고 그녀의 오빠에 의해 개러쓰의 신분이 귀족임을 확인됨으로써 라이오네스와 개러쓰 사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제거된다. 초기 교회법에 따라 결혼 당사자 사이의 동의와 확인이 합법적인 결혼의 중요한 조건들 가운데 하나였으나, 앞서 언급한 작품들에서 뿐만 아니라 말로리의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가문과 가문을 잇는 매개로 여겼던 당시 사람들에게 결혼은 주위 많은 사람의 확인과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다(Shreehan 548). 결혼 당사자의 가족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공식적인 인정 하에 결혼을 성사하기 위해 당시 명망 있는 가문에서 자식을 출가시킬 때 당사자의 개인적 감정이나 선택보다 가문의 처지에서 결혼을 고려하고 이를 철저히 통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또한 결혼을 사적이며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으로 여겼던 15세기 귀족 사회의 결혼관에 비춰 볼 때, 라이오네스와 개러쓰의 결혼은 한쪽 집안의 허락과 인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며 합법적인 결혼이라 볼 수는 없다.

당시 이러한 결혼 관례를 잘 알고 있었던 말로리는 이들의 결합을 당시 기준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결혼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양가의 구성원은 물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둘 사이의 성대한 결혼식을 마련하고

있다. 개러쓰의 어머니를 비롯한 캐멀롯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아서 왕은 각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상대를 사랑하고 선택했는지 확인한 다음, 둘 사이의 공식적인 결혼 선포가 캔터베리 주교 아래 이루어질 것이라 말한다(360). 여기에서 아서 왕이 사용하고 있는 “매우 엄숙하게”(grete solempnyte)라는 표현은 개러쓰와 라이오네스의 결혼이 당시 교회법과 세속적인 결혼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성립되었음을 말해준다. 결국 애정을 기초로 둘 사이에 서둘러 이루어진 결혼 맹세가 가족 구성원,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정 아래 합법성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결혼이 남녀의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혈통과 가문을 잇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말해준다.

특히 개러쓰와 라이오네스의 경우처럼 중세 초기 교회법에 따라 결혼 당사자들이 애정을 토대로 상대를 인정함과 동시에 세속적 결혼관에 따라 혈통과 가문이 확인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혼이 성사되는 것이야말로 당시 귀족 계층의 이상적인 결혼에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가문과 혈통을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당시 결혼은 단순히 가문은 물론 공동체의 이익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로리는 보고 있다. 개러쓰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개러쓰와 라이오네스의 결합은 궁극적으로 개러쓰가 속해있는 가족은 물론 캐멀롯 공동체의 결속과 화합을 끌어내는 구실을 하고 있다.⁷⁾ 이는 다시 한번 가문과 신분을 바탕으로 한 남녀의 만남과 결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신분의 남녀가 교회법과 세속적 결혼관에 입각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결혼은 좁게는 가문의 존속과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넓게는 공동체의 결속과 화합에 끌어낸다는 사실을 개러쓰의 결혼은 말해주고 있다.

IV. 결론 :

파스톤(John Paston)의 편지 속 결혼의 이상과 실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중세 시대 사랑과 결혼은 결혼 당사자들의 권리라기보다는 가문의 존속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당사자들 부모의 권리처럼 보인다. 문학 작품들에서 이러한 경향은 직접적이기보다는 다소 우회적이며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보여주지만, 결혼을 통한 재산의 증식과 신분 상승에 어느 계층보다 민감했던 젠트리 계층의 삶을 보여주는 기록들에는 이러한 사실이 좀 더 사실적이며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랑과 결혼에 대한 당시 일화가 기록된 15세기 파스톤 가문(the Paston family)의 편지들이다. 그 가운데서 파스톤(Elizabeth Paston)과 스코롭(Stephen Scrope)의 결혼을 두고 파스톤 가문 사람들 사이 오간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결혼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분과 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⁸⁾

당시 파스톤의 나이는 20세에 불과하지만, 스코롭의 나이는 50세로서 둘 사이 나이는 30년 정도로 상식적으로 둘 사이의 결혼은 비이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스코롭은 병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불구인 상태이며 젊고 활기 왕성한 파스톤에 적합한 배필이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코롭의 가문과 돈에 의해 두 사람의 결합은 성사된다. 또한 스코롭과는 결혼을 거부하는 파스톤을 설득하기 위해 그녀에게 잔혹할 정도의 매질과 협박이 가해졌는데, 이는 당시 결혼이 얼마나 돈과 가문에 의해 좌우되었는가를 말해준다: “부활절부터 그녀는 대부분 일주일에 한두 차례 매를 맞았으며 때로는 하루에 두 번에 매를 맞기도 하였고, 그녀의 머리가 두 개 혹은 세 개 부분으로 부서졌다.” (And since Easter she has, for the most part, been beaten once or twice a week, and sometimes twice on one day, and her head was broken in two or three places [*The Paton Letters* Vol. 1, 50]). 결혼 상대를 선택하고 결혼에 동의할 권리가 당사자에게 있다는 교회법에 따르면 파스톤과 스코롭의 결혼은 물론 무효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중세 시대 대표적 작가 가운데 하나인 랭랜드(William Langland)는 돈과 신

분적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결혼이야말로 가장 불행하며 자연스럽게 못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요즘 자연스럽게 않은 결혼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이 오직 돈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결혼들은 흥수가 파괴하는 것만큼 불행한 후손들을 생산하게 된다. 돈이 없을지언정, 선량한 남성은 선량한 여성과 결혼해야 마땅하다... 재산 혹은 부유한 관계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And nowadays, to tell the truth, there are many unnatural marriages, for many marry only for money, and these marriages produce such wretched offspring as those whom the Flood destroyed. Good men should marry good women, even if they have no money.... So I warn all Christians never to seek to marry for wealth or rich relations. (311-12)

남녀 사이 애정을 기초로 한 결혼만이 하느님이 은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랭란드는 계속해서 말한다.

랭란드의 이상적인 결혼관은 초서의 작품 속 노파나 여장부처럼 재산과 신분적 관계가 당시 결혼의 조건으로써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회적으로 말해준다. 한마디로 11세기 만들어진 교회법이나 랭란드의 결혼관은 이상에 불과할 뿐, 파스톤 가문의 편지가 오히려 당시 사람들, 특히 중간 계층(the middle class)과 귀족 계층 사람들의 현실적인 결혼관을 반영하고 있다. 재산과 가문을 기초로 한 배우자의 결정은 중세 시대는 물론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 Juliet*), 『한여름 밤의 꿈』 (*A Midsummer Night's Dream*)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후대까지 지속해서 이어졌던 관례였다. 결론적으로 중세 시대 신분이란 타고나는 것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듯이, 결혼 역시 타고난 신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결혼을 통하여 신분의 변화를 피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환상에 불과하였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분명한 것은 중세 시대 결혼은 결혼 당사자의 개인적 행복을 넘어 결혼 당

사자가 속한 가문의 재산 증식, 그리고 특정 신분 계층의 이익과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당시 사람들은 인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다.

Notes

- 1) 이동춘, “게임과 교육의 관점에서 본 안드레아스의 『궁정풍의 사랑』,” 『중세르네상스영문학』 20 (165-86) 참고.
- 2)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ope of "the world upside down" and *impossibilia*, see E. R. Curtis, *European Literature and the Latin Middle Ages*, trans. Willard R. Trask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3), 94-8.
- 3) 논문에서 작품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필자의 것임.
- 4) Geoffrey Chaucer, *The Riverside Chaucer*, ed., Larry D Benson et al.,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본 논문에서 초서 작품 관련 인용은 Riverside Chaucer Edition을 따름.
- 5) 초서와 광상학 관련 대표적 논문으로서 Laurel Braswell-Means, "A New Look at an Old Patient: Chaucer's Summoner and Medieval Physiognomia," *Chaucer Review* 25 (1991): 266-75; Douglas Wurtele, "Some Uses of Physiognomical Lore in Chaucer's *Canterbury Tales*," *Chaucer Review* 17 (1982): 130-41.
- 6) 카웰티(John Cawelti)가 주장하는 '대중문학'(the popular literature)의 특징은 대량의 출판과 넓은 독자층 이외에 작품의 내적인 면으로써 중심 독자층의 기대와 가치관을 투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중문학'은 독자들이 선호하는 플롯, 판에 박힌 등장인물들, 그리고 보편적인 메타포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카웰티는 주장한다(6); *Adventure, Mystery, and Romance: Formula Stories as Art and Popular Culture* (Chicago: Chicago UP, 1976).
- 7) 개러쓰의 결혼이 캐멀롯 공동체의 결속과 화합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말로리는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초기 자본주의 태동과 더불어 개인주의가 점차 강조되기 시작하는 15세기 후반 영국 사회에 과거 공동체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닝(Robert Hanning)은 주장한다. 해닝은 또한 말로리의 작품에는 영웅의 사적인 욕망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내지 중요성이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Robert W. Hanning, "The Social Significance of Twelfth-Century Chivalric Romance," *Medievalia et Humanistica* n.s. 3 (1972): 3-29.
- 8) 엘리자베스 클레러(Elizabeth Clere)가 자기 조카 존 파스톤 1세(John Paston I)에게 보

년 편지에서 파스톤과 스크롭 사이의 결혼 일화가 잘 드러나 있다; Jacqueline Murray, ed. *Love, Marriage, and Family in the Middle Ages* (Toronto: U of Toronto P, 2001), 158.

Works Cited

- 유희수. 「11~12세기 프랑스 귀족 사회에서의 결혼과 성-교회 이데올로기와 세속현실의 충돌과 타협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65권, 35-56쪽.
- 이동춘. 「중세 후기 로맨스에 나타난 젠트리 계층의 이데올로기: 가족, 결혼, 그리고 신분 계층」. 『영어영문학』, 47권 1호, 161-83쪽.
- Braswell-Means, Laurel. "A New Look at an Old Patient: Chaucer's Summoner and Medieval Physiognomia." *Chaucer Review*, vol. 25, 1991, pp. 266-75.
- Brewer, D. S. "Class Distinctions in Chaucer." *Speculum*, vol. 43, 1968, pp. 290-305.
- Brooke, Christopher N. L. *Medieval Idea of Marriage*. Oxford UP, 1989.
- Brundage, James A. *Law, Sex and Christian Society in Medieval Europe*. U of Chicago P, 1987.
- Capellanus, Andreas. *The Art of Courty Love*. Translated by John Jay Parry, Columbia UP, 1941.
- Carol Rawcliffe, Carol. "The Politics of Marriage in Later Medieval England: William Lord Botreaux and the Hungerfords." *Huntington Library Quarterly*, vol. 51, 1988, pp. 161-75.
- Cawelti, John. *Adventure, Mystery, and Romance: Formula Stories as Art and Popular Culture*. Chicago UP, 1976.
- Chaucer, Geoffrey. *The Riverside Chaucer*. Edited by Larry D. Benson, 3rd ed., Houghton Mifflin, 1987.
- Cherewatuk, Karen. "Pledging Troth in Malory's 'Tale of Sir Gareth.'"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vol. 101, 2002, pp. 19-40.
- Crane, Susan. "Alison's Incapacity and Poetic Instability in the *Wife of Bath's Tale*." *PMLA*, vol. 102, 1987, pp. 20-8.
- Curry, Walter Clyde. *The Middle English Ideal of Personal Beauty As Found in the*

- Metrical Romances, Chronicles, and Legends of the Thirteenth, Fourteenth, and Fifteenth Centuries*. AMS Press, 1972.
- Curtis, E. R. *European Literature and the Latin Middle Ages*. Translated by Willard R. Trask, Routledge and Kegan Paul, 1953.
- Dempster, Germaine. "'Thy Gentillesse' in the *Wife of Bath's Tale*, D 1159-62." *Modern Language Notes*, vol. 57, 1942, pp. 173-76.
- Duby, George. *Medieval Marriage: Two Models from the Twelfth-Century France*. Translated by Elborg Forster, Johns Hopkins UP, 1991.
- Eaton, R. D. "Gender, Class and Conscience in Chaucer." *English Studies*, vol. 84, 2003, pp. 205-18.
- Hanning, Robert W. "The Social Significance of Twelfth-Century Chivalric Romance." *Medievalia et Humanistica* N.S., vol. 3, 1972, pp. 3-29.
- Hudson, Harriet E. "Construction of Class, Family, and Gender in Some Middle English Popular Romances." *Class and Gender in Early English Literature: Insections*, edited by Britton J. Harwood and Gillian R. Overing, Indiana UP, 1994, pp. 76-94.
- Langland, William. *Piers The Ploughman*. Translated by J. F. Goodridge, Penguin Books, 1966.
- Lyons, Faith. "Malory's Tale of Sir Gareth and French Arthurian Tradition." *The Changing Face of Arthurian Romance*, edited by Alison Adams et al., Woodbridge, 1986, pp. 137-47.
- McFarlane, K. B. *The Nobility of Later Medieval England*. Clarendon P, 1973.
- Murray, Jacqueline. *Love, Marriage, and Family in the Middle Ages*. U of Toronto P, 2001.
- Patterson, Lee. "'For the Wyves love of Bathe': Feminine Rhetoric and Poetic Resolution in the *Roman de la Rose* and the *Canterbury Tales*." *Speculum*,

- vol. 58, 1983, pp. 656-95.
- Pugh, Tison. "Squire Jankyn's Legs and Feet: Physiognomy, Social Class, and Fantasy in the Wife of Bath's Prologue and Tale." *Medievalia et Humanistica: Studies in Medieval and Renaissance Culture*, vol. 32, 2007, pp. 83-101.
- Quinn, Esther C. "Chaucer's Arthurian Romance." *Chaucer Review*, vol. 18, 1984, pp. 211-20.
- Rawcliffe, Carol. "The Politics of Marriage in Later Medieval England: William Lord Botreaux and the Hungerfords." *Huntington Library Quarterly*, vol. 51, 1988, pp. 161-75.
- Scattergood, John. "Courtliness in Some Fourteenth-Century English Pastourelles." *Reading the Past: Essays on Medieval and Renaissance Literature*, Four Courts Press, 1996, pp. 61-80.
- Sheehan, Michael M. "The Formation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Fourteenth Century England: Evidence of an Ely Register." *Medieval Studies*, vol. 33, 1971, pp. 214-29.
- Sir Eglamour of Artois*. Edited by Frances Richardson, Oxford UP, 1965.
- Stone, Lawrenc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Harper, 1977.
- Strohm, Paul. "Chaucer's Audience." *Literature and History*, vol. 5, 1977, pp. 26-41.
- Torrent of Portengale. Middle English Verse Romances*. Edited by Donald Sands, Holt, Rinehart, Winston, 1966.
- Vinager, Eugene. *The Works of Sir Thomas Malory*. 3rd Ed., Clarendon P, 1990.
- Wittig, Susan. *Stylistic and Narrative Structures in the Middle English Romances*. U of Texas P, 1978.
- Wurtele, Douglas. "Some Uses of Physiognomical Lore in Chaucer's *Canterbury*

Tales." *Chaucer Review*, vol. 17, 1982, pp. 130-41.

Abstract

Social Status and Marriage in the Late Medieval Romances

Dongchoon Lee
Daegu Univ.

During the medieval age, individual choice and marital affection did not seem to have served as the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the marriage. Social status and economic factors crucially worked to constrain individual choice. Along with such factors as age and appearance, the issue of social class was described as one of the potentially disabling factors in marriage. In Andreas's *De Amore*, the focus is given to social class, and the dialogues powerfully assert the importance of social class in relation to love and the problems involved in trying to transcend its division. The issue of love and social class are handled somewhat directly in his work such as *The Parliament of Fowls*, as well as ironically in *The Wife of Bath's Tale*. Social clas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considering marriage was more emphasized than ever before in the late Middle age, which reflects the social and economic transition from a patriarchal feudalism to a proto-capitalism. As the period wore on, marriage became more 'class-determined' and served as a means for 'class solidarity,' and as a stepping stone for the cohesion of community as well as the harmony of family.

Key words: marriage, social status, medieval romance, Chaucer, Malory

논문접수일: 2022.09.25

심사완료일: 2022.10.17

게재확정일: 2022.10.24

이름: 이동춘

소속: 대구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정교수

이메일: dclee@daegu.ac.kr